

## 오피니언

11

## 사설

## 학생식당, 구성원 복지 차원에서 바라봐야

지난 2년간 국제캠 학생회관 식당을 운영해왔던 '리앤이라마피네'의 계약 연장이 무산됐다. 구성원의 낮은 만족도 때문이었다. 학교는 당장 내년부터 학생회관 식당을 위탁 운영할 업체를 찾아야 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중요한 것은, 학생 식당은 '구성원 복지' 공간이라는 원칙이다.

학식을 이용하는 구성원은 캠퍼스에서 대부분을 보낸다. 그들은 캠퍼스 안에서 강의를 듣고, 조별 과제, 동아리 활동을 하며 대부분을 지낸다. 그 사이 끼니를 해결하는 일은 단순한 식사 행위를 넘어선 생활의 일부다.

든든하게 해결한 식사로 힘차게 영위하는 대학 생활은 궁극적으로 대학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그렇기에 학생 식당을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 학교는 신중해야 하고, 아무리 위탁 운영이라 해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기에 학교는 내년에 학생

식당 운영을 맡을 업체와 '공동 운영'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학생 식당 관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는 좋은 평가를 받는 타 학교 학생 식당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 수익성이 낮은 학식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업체 임대료 감면, 공과금 지원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또 학생 식당 영업권뿐 아니라 편의점과 같은 캠퍼스 내 구성원 복지 시설 영업권을 제공하며 입점 업체의 수익성을 보장한다. 대학교 업체 모두 이러한 지원이 학생 식당을 복지사업으로 보기 가능했다고 입을 모은다.

구성원 만족도가 높은 한국외대 서울캠퍼스의 '학식 직영 운영' 또한 참고할 수 있다. 외부 업체에 위탁운영을 맡기지 않는다면, 학교는 학식 운영에 있어 위탁운영보다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직영인 만큼 위탁업체보다 꼼꼼한 관리와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학식을 구성원 복지

로 본다면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는 방안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식당 운영에 우리학교가 얼마만큼의 재정적, 인적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다. 식당 이외에도 교내 여러 분야에 개선과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캠퍼스 안에서 생활하는 구성원의 끼니를 해결해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아쉬운 이야기지만, 내년에도 학생회관 학생 식당은 외부 기업체에 운영을 위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적인 조건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했다 하더라도, 학교는 단순히 운영을 위탁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더군다나 새롭게 들어올 업체가 지난 업체처럼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학교의 과감한 결단으로 말 많고 탈 많았던 국제캠 학식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 세시봉

## 서울공화국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올해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시기,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한은은 지난 8월 '임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 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해 지역 비례 선발제를 대안으로 냈다. 수도권 과밀화 문제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일환이다.

지역 비례 선발제는 일부 상위권 대학이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입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입시경쟁이 사교육 부담, 수도권 과밀화, 집값 상승 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한은이 고위 업무 범위를 넘어 사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당연한 반응이지만 이창용 총재의 입시에 대한 발언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사실상 수도권 쏠림 문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GDP의 53%가 쏠려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은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 진학에 학생의 거주지가 미치는 영향이 92%에 이른다. 이는 부모의 재력에 따라 자녀가 어떤 대학을 가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방의 기회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며 수도권은 성장했고, 그 중심에는 강남이 자리 잡았다. 결국 수도권 최정점에 올라선 강남은 부와 교육, 기회의 상징으로 떠오르며 이른바 '강남 신화'를 지속시키고 있다.

물론 지역 비례 선발제는 역차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수도권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선이 다른 사회에서 진정한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균형적 분배가 반드시 필요하다. 당장의 채택은 어렵더라도 귀를 기울일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부모의 재력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지는 불완전경쟁에서, 공정한 기회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비록 그 격차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격차를 보다 좁히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진 것은 분명하다. 단순히 실현 가능성 없는 대안이라며 돌려말 것이 아니라, 한은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아델란테

## 축제의 가능성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지난달 성료한 '아델란테'는 국제캠 축제의 여러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줬다.

주점 운영 시간을 새벽 시간이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부스 운영을 활성화했다. '슈퍼밴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중심 공연도 이뤄졌다.

과거 국제캠 축제는 오로지 마시며 즐기는 날이었다. 신입생이라는 이유로 의지와 상관없이 밤새도록 학과 주점 부스를 운영한 학생도 많을 것이다.

새벽 3시가 넘어가도 끝나지 않았다. 술로 시작해 술로 끝나는 축제였다. 인기 가수 공연을 보거나 유흥을 즐기거나. 우리학교만의 학생 문화를 찾기에는 매우 어려웠다.

이번 총학은 국제캠 축제의 '고질병'으로부터 탈피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가장 먼저 주점 운영 시간을 제한했다.

또한 '스탬프 투어' 등의 부스 운영 활성화를 도모했다. 특히 전례 없는 학생 문자 투표 시스템을 도입한 '슈퍼밴드' 프로그램으로 학생 중심 공연 문화 창출을 이뤄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재학생 밴드 공연을 관람한 학생들이 직접 문자 투표를 통해 1등을 뽑았다. 대학 축제가 인기 가수 섭외 경쟁으로 변진 지 오래지만 이번은 조금 달랐다. 모든 것은 학생으로 시작해 학생으로 끝난 축제였다. 학생 공모전으로 이름이 결정된 '아델란테'는 우리학교 학생 문화 중심으로 이뤄져 대학 교유의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누군가는 마시며 즐기는 축제가 되지 못해 아쉬웠을 것이다. 누군가는 학생 공연, 교수 밴드 공연보다 인기 가수의 공연을 빨리 보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아델란테가 보여준 학생 문화에 중점을 둔 축제는 장기적으로 더욱 활기찬 캠퍼스를 만들어 줄 것이다.



만평 학생 문화가 중심이 된 아델란테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편집인 남윤재

편집장 조병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mailto: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아이피디